



보탑이 장식된 관을 쓴 금동미륵보살반가상. 김홍식 학예관리관(사진 오른쪽)이 얼굴을 한지로 감싸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근우)이 내년 10월 개관할 용산 새 박물관으로의 첫 이사를 시작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4월 19일 박물관 소장 석재 유물 2,160여점을 용산 박물관 수장고로 옮겼다. 4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8개월간 계속되는 소장품 이사의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이다. 1953년 남산, 65년 덕수궁 석조전, 72년 경복궁, 86년 중앙청, 96년 현재 중앙박물관까지 5번의 이사를 했던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으로 이전하면 더 이상 '남의 집'을 전전할 이유가 없어진다. 특히 5월말 옮겨질 광주 춘곡동 철제여래좌상은 높이가 2.8m에 무게 6.2t에 달해 전시설벽을 허물고 트레일러로 들어내야 할 만큼 유물운송은 '초특급 비상 작전'을 방불케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이 용산 새 박물관으로 이사하던 날 그 현장을 따라가 보자.

물의 안전한 이전을 기원하는 고사도 진행됐다. 활짝 웃는 돼지 머리 앞에서 술을 올리고 절을 한 이근우 관장은 "유물이 안전하게 도착해 기쁘고,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송팀이 알루미늄 박스를 수장고까지 옮긴 후, 박스를 개봉해 포장을 푸는 것으로 이날 첫 유물 이전

용산까지 9.5 Km, 무진동 차량 이송 유물가치 7천억, 미륵반가상만 3백억

이 마무리 됐다. 이날 처음으로 포장을 벗은 유물은 손바닥 크기의 '석제 버루'였다.

새 박물관으로 옮겨지는 소장품은 지정문화재 396점을 포함해 모두 99,622점. 국보급 유물뿐만 아니라 어느 것 하나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소중한 유물들이기에 이사 비용만 52억에 달한다. 또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5억원 가량의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회사에서는 유물 10만여 점의 가치를 7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날 포장한 미륵반가상 하나만 300억의 보험평가액이 매겨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0만 여점의 유물을 이전하기 위해 학예연구직을 중심으로 한 포장조 6팀, 운송조 1팀, 포장해체조 4팀을 구성했다. 연인원 7,700여명이 이사에 투입되는 셈이다.

석제 유물부터 시작되는 이사는 도자기, 금속 유물, 전적·회화류 순서로 진행돼, 용산 박물관 수장고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 이전한 유물 어떻게 보관하나

성격, 재질 따라 별도 수장고 보관 시멘트 독(毒) '새집 증후군' 걱정

용산 박물관 수장고는 현재 수장고보다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소장품의 성격과 재질에 따라 별도의 수장고에 보관된다.

수장고는 외벽이 이중이어서 물이 스미거나, 유해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았다. 또 수장고별로 독립 공조시설을 설치해 적절한 수장환경이 유지되도록 했다. 지문감식기, 누수·화재조기 감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방재시설도 최첨단으로 새롭게 바꿨다.

수장고는 최상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새집 증후군'이 유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우려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병우 소장은 "수장고에서 나오는 시멘트 독(毒)이 분명한 유물에 피해를 끼칠 것 같다"며 "이를 어떻게 막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용산 새 박물관의 수장고 내부에선 매캐한 '새집' 냄새가 남아 있었다.

글=오유진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 금동미륵보살반가상 포장 시연



"다음은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자 유물포장 시연을 위해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이하 미륵반가상)이 담겨있는 알루미늄 상자가 옮겨졌다. 상자에서 꺼내온 미륵반가상은 얼굴 아래까지 이미 포장된 상태. 이날 포장은 문화재 포장·이송 전문가인 유물관리부 김홍식 학예연구관이 맡았다.

얼굴 아래 포장은 미륵반가상임을 확인하고 촬영까지 마친 후, 나무 받침대에 미륵반가상을 올려 중성 한지로 여러 차례 감싸는 과정을 거친다. 이어 한지로 두겹게 만든 솜포를 이용해 다시 한번 포장한다.

보탑이 장식된 관을 쓰고 눈을 반쯤 내린 채 미소를 띤 얼굴만이 드러난 미륵반가상. 마치 미라처럼 온몸이 한지로 단단히 감싸졌다. 미륵반가상의 얼굴도 몸체와 동일한 순서로 한지와 고풍을 이용해 곱게 감쌌다. 그리고 면으로 만든 소장지로 다시 한번 외부를 감싸고, 바닥 나무와 유물을 끈으로 묶었다.

중성 한지는 유물의 산화를 막기 위해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특수 제작했다. 한지를 재료로 한 솜포 포장법은 소재나 방법면에서 한국의 전통적이 포장방식이다.

완전 포장된 미륵반가상은 유물의 외형선을 그대로 본떠 만들어진 목재 틀로 고정하는 '주형포장기법'을 이용해 알루미늄 상자에 담겼다. 주형포장기법을 사용하면 상자가 360도 회전해도 유물이 움직이지 않는다.

■ 유물 이전 과정

이렇게 포장된 알루미늄 상자는 수장고에서 나와 문화재나 미술품을 전문으로 옮기는 '무진동차량'에 옮겨져 새 박물관까지 이동했다. 유물 운송차량에는 운송의 안전을 위해 직원과 무장한 호송원이 탑승하고, 차량 앞뒤로 경찰차가 호위했다. 유물의 안전을 위해 운송차량은 시속 20km 이하로 달려야 했다.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9.5km를 이용해 새 박물관 수장고로 들어오는 유물을 풀어놓기 전, 수장고에선 유



용산에 들어서는 새 국립중앙박물관 조감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전시면적만 8천여평으로 박물관 서쪽에서 동쪽까지 404m나 되는 초대형 박물관이다. 상설전시관 43개와 기획전시실, 어린이 박물관, 야외전시장, 수장고 21개를 갖췄다.

국립중앙박물관 이사 가는 첫 날

안전하게 모셔라! 초비상 작전

10월 개관 앞둔 용산 새 박물관 19일 유물 2,160여점 첫 이전 나머지 99,622점 12월 말까지 미륵반가상 피해 막기 위해 한지이용한 솜포 포장법 사용

■ 유물 포장 과정



청자양각 기린형 향로 포장 과정. 향로의 몸체와 뚜껑을 각각 한지로 싸 후 솜포로 다시 감싼다. 포장은 오동나무에 넣어 마무리한다.



몸체 포장을 마친 상태.



얼굴을 소장지로 단단히 감싸고 있다.



수장고에서 꺼낸 상자를 무진동 차량에 싣고 있다.



유물을 수장고로 옮기고 있는 운송팀의 표정이 진지하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02)720-8489

특별 기획안내 (호희 유림선으로 중국여행을...)

○ 출발일: 2004년 4. 5. 6월

1. 북경/백두산 7일(매주 화요일 출발) 69만원
2. 청도/태산/곡부/천불산(만불등) 6일(목, 토 출발) 40만원

불교 성지순례 (중국 4대불산)

1. 관음도량 - 보타산/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 구화산/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 아미산/낙산대불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 오대산/운강석굴 5일 69만원
5. 달라이라마의 성지 - 티벳/낙산대불 8일 169만원

■ **요금포함내역(공통사항)**

-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호텔(4성급, 2인1실), 천일정 관광 및 식사, 차량료, 선박료, 인천공항세, 현지교통세, 관광진흥기금, 1억원 여행보험
- 불포함사항: 여권, 비자비, 현지 기사/가이드 팁, 개별비용 - 비고: 11명당 1명 무료, 10명이상 출발가능, 인솔자 동행

고품격 여행과 윤년 제주도 삼사순례! 소원성취 방생법회를 최남단 마라도에서...

▶ 일요일 출발 - 225,000원 ▶ 화, 목, 토 - 248,000원 ▶ 금요일 출발 - 28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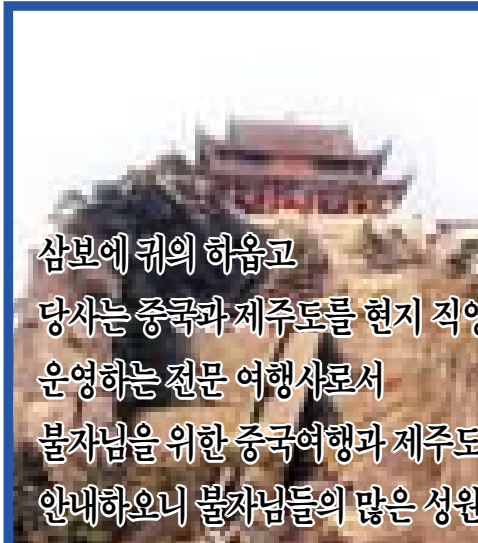
<요금 포함내역 및 특징>

왕복항공료, 관광 1급호텔 2박, 조식 2회, 중식 2회, 마라도 유람선, 마라도해상국립공원 입장료, 여미차, 퍼시픽랜드(물고래, 바다사자쇼), 해미안 녹차/해수 사우나, 제주 10경 관광안내, 차량료, 여행자보험

<관광일정 - 일요일 출발 기준입니다>

제 1일	제주공항 도착 → 마라도 "기원조사" 방문 및 방생법회 → 오! 설록(설복초밥 및 유지)방문 → 호텔 투숙 및 저녁공연(자유식)
제 2일	호텔 아침공양 후 → 동양 최대의 식물원 "여미차" 관광 → 제주 최대의 해금강이라 불리는 "주상절리"를 관광 → 점심공양 돌고래, 바다사자의 환상적인 쇼 "퍼시픽랜드"를 관람 → 동양 최대의 사할 "약천사" → 밀강/버섯 농장 견학 "정방폭포"(혹은 천지연 폭포)를 관광 → 호텔 투숙 및 저녁 공연(자유식)
제 3일	해미안 녹차/해수 사우나(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 아침공양 → 시냇에서 소풍 → 한라산 내 "신비의 도로" → "절물추앙림"에서 삼림욕!!! → "조형발 체험" 또는 "동굴리안 마상쇼" 관광 → 성당인음악을 관람 → 점심공양 → "동일불사대립"고려사"방문 → 제주공항으로 이동 → 김포공항 해산

50명 이상 단체는 별도의 일정(맞춤)과 가격을 드립니다!!!



삼보에 위의 하얏고
당사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